

타자와 환대, 이호철 소설의 한 원형*

전 소 영**

요약

이호철은 데뷔 초기에 써낸 작품들이 자신이 토해낸 핏자국과 같다고 고백하였다. 그가 피난선을 타고 남면으로 내려온 이후 겪어야 했던 삶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1950년대 단편 소설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쪽에 가족을 두고 홀로 남하하여 외로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그는, 초창기 소설들 속에서 개인이 아니라 관계, 즉 공동체의 이합집산 과정을 반복해서 그려낸다. 여기에 작가의 원형적 기억 혹은 자의식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이호철은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기에 원산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당시 강력한 이념의 전파 장소였던 교실에서 이데올로기의 투사로 만들어진 인물과 마주쳤고, 적을 만들어내고 또 소거하는 과정을 통해 동일화와 타자화의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의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작가의 기억에 원형적인 문제로 남아 역시 분단 이데올로기에 장악되었던 남한 사회의 문제를 포착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 그리하여 이호철은 1950년대 작품들에서 타자와 환대의 문제를 통해 분단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발화하는 소설적 방법론을 마련해 나갔다.

주제어: 이호철, 탈향, 타자, 환대, 월남

* 이 논문은 2019년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및 문학 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목차

1. '핏자국의 임리'로서의 1950년대 소설
2. 타자화를 동력 삼은 이념의 문제
3. 소설 세계의 원형 : 환대의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4. 그 '산' 찾기의 여정

1. '핏자국의 임리'로서의 1950년대 소설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깊은 地獄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만큼 순수하게 노래할 수는 없다.”¹⁾ 데뷔작을 쓸 무렵의 기억을 담아낸 한 산문에서 이호철은 카프카의 언급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덧붙여 하나의 소설에는 소설가의 모습이 투영되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1950년대 자신의 작품들에 담긴 것은 ‘거리 두기’에 실패한 자기 모습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도리어 스스로 토해낸 ‘핏자국의 임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설은 바로 그 常事者의 경우 피를 토하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淋漓하게 토해진 옛날의 핏자국을 몰아보고 역겨움과 쑥스러움과 그 비슷한 것이라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²⁾ 1951년의 피난지 부산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이호철의 초기 단편 소설들 속에는 이렇듯 ‘가장 깊은 지옥 속’으로 발을 디딘 그가 그 시절 겪어야 했던 고통이 깊은 흔적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6.25가 발발하였을 때 원산고급중학교의 3학년이었던 이호철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 인민군 대열 안에 서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짧은 국군 포로 생활을 거쳐 가족의 도움으로 월남하였다. 그러나 목숨 하나만 가지고 남하한 소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1950년 12월 LST로 부산항 제 1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연고자였다. 그에

1) 이호철, 『『素描』와 『脫郷』』, 『사상계』, 1967.3., 83면.

2) 위의 글, 같은 면.

게 남아있는 것은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생존하려는 강력한 의지뿐이었다. 그리하여 이호철은 수정동 피난민 수용소에서 머무른 닷새를 제외하고는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으며 부산을 전전했다.³⁾ 피난민 증 한 장애 의지해 부산 제 3부두의 하역 노동자와 부산 동래 미군 JACK 부대의 경비원, 제면소 도제 등으로 살았다. 그 삶이 신산스럽지 않을 리 없었다.⁴⁾

이호철이 1951년 부산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1950년대 소설들에서는 이 “1950년 12월 첫 남하(南下)하여 부딪힌 대강의 정황”⁵⁾들, 즉 거의 무일푼으로 타지에 혼자 떨어진 월남민의 고통과 그가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마다 부딪혔던 사회적 벽의 형체가 아른거린다. 그럼에도 그의 초창기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⁶⁾ 물론 『탈향』이나 『나상』 같은 대표작의 경우 전후 문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활발히 조명되어왔고⁷⁾ 『판문점』이나 『소시민』 같은 1960년대 소설들도 개별 작품론 안에서 호평을 받았다.⁸⁾ 다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많은 단편 소설들이 논

3) 이호철에 따르면 그는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대신동 경남도청에 잠시 들렀다가 수정동 피난민 수용소로 옮겨졌다. 닷새 정도 후 쌀 몇 되와 약간의 돈, 피란민증을 받고 부산 거리로 나왔다. 이호철,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기』,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1』, 자유문고, 2018, 28-29면.

4) 강진호, 『원용의 삶과 꿈은 지향의 문학』, 『이호철 원용의 삶과 꿈은 지향의 문학』, 글누림, 2010, 13면.

5)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이호철의 문단 일기』, 프리미엄북스, 1997, 17면.

6) 1950년대 단편 전반을 일별하며 주요 키워드로 읽어내고 있는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박은태, 『이호철의 1950년대 소설 연구』, 『수련어문학회』 28, 2003.

조현일, 『이호철의 1950년대 소설 연구: 감정과 눈물의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7, 2008.

구재진, 『1950년대 이호철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 2017.

7) “이 출발은 알파한 인정주의와 감상주의와의 결별은 소박한 휴머니즘과 비장한 영탄조, 맹목의 이데올로기에 일방적으로 이끌리는 전후 소설에서 벗어나 객관 현실의 구체적 탐구로 나아가지 시작했음을 알리는 소설사적 의미를 머금고 있다. 탈향한 ‘나’는 우호적일 리 없는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남기 위해 험한 세상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행로의 추적은 곧 객관 현실의 구체적 탐구일 것이다.” 정호용, 『이호철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109면.

구의 대상 삼아지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것들을 관통할 만한 어떤 줄기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를 갱신하는 차원에서 생산된 2010년대 이후 연구들은 이호철의 월남 이력에 주목하여 그를 ‘고향 상실’의 작가라는 범주 안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월남민 출신 작가들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월남 작가’를 하나의 문학사적 단위로서 인식하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⁹⁾ 다만 월남 작가들의 삶의 구체적인 이력에 따라 다채로운 의미의 분광을 지닐 수 있는 ‘고향 상실’의 의미를, 그의 생애와 작품을 연결시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상실감’, ‘귀향의 의지’라는 범박하고 예상 가능한 결론으로 귀결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월남 작가 이호철이 분단 직후부터 전시기에 이르기까지 맞닥뜨렸던 경험적 특수성과 그것이 녹아든 1950년대 단편 소설을 결부시키면서 그의 문학 속 원형적 의식을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작’의 범주에 대한 재설정 이 필요해 보인다. 현존하는 연보 상의 첫 소설은 『脫郷』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호철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경우 文壇出世作이 『脫郷』과 『裸像』이니만큼 이것이 處女作으로 남들도 보아주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執筆年代로 따진다면 『素描』나 『倦怠』가 더 앞선다. (...) 『素描』와 『倦怠』를 쓰던 무렵은 내가 스물한 살때였고 東萊溫川場의 某 美國人機關에 있었던 때였다.”¹⁰⁾

이 글이 1967년에 발표되었음을 고려할 때, 『素描』와 『倦怠』는 1961년

8) 강진호 편, 『이호철 - 원용의 삶과 곧은 지향의 문학』(글누림, 2010.)에 수록된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9) 서세립, 『1960년대 이후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월남민 형상화 연구』, 『한어문교육』 32권, 2015;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권 2호, 2015, 158-212면.
 10) 이호철, 『『素描』와 『脫郷』』, 『사상계』, 1967.3., 83면.

사상계사에서 간행되었던 소설집 『나상』에 수록된 동명의 소설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핏자욱」(『문학예술』, 1957.10.)으로 먼저 발표되었다가 『나상』에 묶이면서 「素描」로 게재된 작품이다.¹¹⁾ 후자의 경우 1952년 9월 이호철이 시인 박남수의 소개로 부산 남포동의 금강다방에서 황순원을 처음 만나 그에게 「B양과 고아」라는 소설을 보여주었고¹²⁾ 이것을 고쳐 1960년 2월 『새벽』지에 「細實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작품이 1961년 사상계사에서 발간된 작품집 『나상』에 수록되면서 「倦怠」로 게재되었던 것이다.¹³⁾

따라서 작가의 초기 소설 세계나 의식에 관하여 논구할 때는 기실 「脫郷」, 「裸像」과 더불어 「素描」와 「倦怠」도 함께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기 더해, 이호철이 「脫郷」 발표 무렵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세 原型素描 - 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¹⁴⁾까지 ‘초기작’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들 소설을 비롯한 1950년대 작품들에서 월남 전후의 경험세계를 토대 삼은 이호철 문학 세계의 ‘원점’이 빚어졌음은 물론이다.

11) 다시 「오돌 할멈」으로 제목이 바뀌어 1988년 청계관 소설 전집에 수록되었다. 『창작과 비평』 2009년 9월호에 이 소설의 속편인 「오돌 할멈 손자 오돌이」가 실렸을 정도로 이호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품이다.

12)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이호철의 문단일기』, 프리미엄북스, 1997, 102-105면 참고.

13) 황태목,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3면.

14) 이호철은 「남녘사람 북녘사람」의 연작을 1955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 원형의 소묘」는 그중 가장 첫머리에 놓이는 소설이다. (이호철, 「고등학교 시절의 활동, 그리고 『남녘사람 북녘사람』,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1, 앞의 책, 58면.) 「세 原型素描 - 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라는 제목으로 『실천문학』 4호(1983.12)에 발표되었다가 연작소설집에 수록되었다.

2. 타자화를 동력 삼은 이념의 문제

이호철의 등단작 『脫郷』(『문학예술』, 1955.7.)¹⁵⁾은 당대 “소박한 휴머니즘과 비장한 영탄조의 50년대 소설과 결별이라는 소설사적 의미”¹⁶⁾를 지녔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 역시 대체로 이 작품이 ‘걸출한 전후 소설’이자 작가 문학 세계의 시원(始原)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¹⁷⁾ 다만 작품이 주로 ‘전후 문학’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는 지면 위에서 언급이 되어온 까닭에 거기 담긴 이호철의 원형적 자의식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

하룻밤 신세를 진 화룻간은 이튿날 밤엔 곧잘 어디론가 없어지곤 했다. 하루저녁에도 몇 번씩 이 화차 저 화차 자리를 옮겨잡아야 했다. 자리를 잡고 누우면 그나마 흐뭇했다. 나 어린 나와 하원이가 가운데, 택진 이와 삼손이가 양가생이에 눕곤 했다.¹⁸⁾

작가의 원형적 자의식을 발견하게 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소

15) 이호철은 부산에서 『어둠 속에서』라는 제목을 붙여 45여 매 정도로 썼던 원고를 전쟁이 한창이었던 서울에서 250매짜리 『암야』로 고쳤다. 환도 후에는 황순원의 권고를 받고 다시 65장짜리 『탈향』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1955년 황순원의 추천으로 『문학예술』 7월 호에 실리면서 데뷔작이 되었다.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이호철의 문단 일기』, 앞의 책, 174면.

16) 정호용, 앞의 책, 109면.

17) 김춘식, 『소시민적 체험과 분단인식의 문학』, 『한국문학연구』 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6, 12, 169면. 음영철, 『이호철 소설의 분단서사 양상 연구』, 『통일인문학』 54,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11, 171면.

18) 이호철, 『脫郷』, 『문학예술』, 1955.7, 64면. 이호철은 개작 과정에서 택진과 삼손의 이름을 각각 택진과 삼손으로 바꾸었다.

“하룻밤 신세를 진 화룻간은 이튿날 곧잘 어디론가 없어지곤 했다. 더러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이 화차 저 화차 자리를 옮겨잡아야 했다. 자리를 잡고 누우면 그런대로 흐뭇했다. 나 이 어린 나와 하원이가 가운데, 택진이와 삼손이가 양 가장자리에 눕곤 했다.” 이호철, 『탈향』, 『이호철 전집 1 - 판문점』, 청계, 1988, 1면.

설 속 인물 설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사의 중심에 놓인 ‘나’, 삼손, 택진, 하원은 피난선을 타고 남으로 내려온 인물들이다. 매한가지로 원산 출신¹⁹⁾이며 거처도 없이 부산 거리를 떠돈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가혹한 타향살이 안에서도 이들은 배에서 만난 서로에게만은 각별한 정을 지니고 있다.

네 인물은 원산에서 살다가 1.4 후퇴 때 월남했다는 점,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 초반의 나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이력을 환기하는 존재들이다. 다만 이호철은 “나는 그때 초량역 근처에서 실제로 화차 살이를 한 일은 없었고, (...) 그러니까 그 『탈향』은 내실을 이루는 부분은 완전히 허구였”²⁰⁾음을, 즉 철저히 만들어진 소설임을 밝혀두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비어져 나온다. 그는 작중에 자신과 겹쳐놓을 수 있는 원산 출신의 인물을 등장시키되 왜 개인이 아니라 월남민‘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복수(複數)의 주체를 그려냈는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왜 작가의 ‘핏자국’이었는가.

그 흔적을 더듬다 보면 이호철 자신이 소년 시절 겪었던 하나의 경험 안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45년 원산에 해방이 찾아들었을 때 이호철은 원산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낸 신입생이었다.²¹⁾ 1947년까지는 중학생이었고 그해 가을에 학제가 개편되면서 원산고등학교(당시 명칭으로는 원산고급중학교)에 진학하여 1950년 6월까지 다녔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7일, 인민군에 동원되어 잠깐의 국군 포로 생활을 거친 후 월남에 이르게 된 것이다.²²⁾ 이처럼 이호철은 청소년기에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

19) 청계관 『탈향』에는 이북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학예술』에 수록된 초판본과 사상계사에서 1961년에 출간된 작품집 『나상』 수록본에는 이들의 고향이 ‘원산’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20) 이호철,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1, 자유문고, 2018, 34면.

21) 이호철은 1932년 3월 15일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현동 81번지에서 전주 이씨인 아버지 찬용, 어머니 박정화의 2남 3녀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중농 정도의 농가 태생으로 4살에 조부에게서 친자문을 배웠고 6살부터 문중 서당에서 수학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호철,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1, 앞의 책, 48면.

되는 과정 및 북한의 정권 수립기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 경험을 훗날 그는 이같이 술회한다.

북한 체제 초기를 10대 후반에 5년 동안 겪었던 사실은 나의 영혼 저 밑 바닥에 부은 마그마, 암장마냥 깊숙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떤 그럴싸한 논리들도 나의 마그마를 녹여낼 수 없이 나에게서는 본원적으로 곁도는 것들이었고 입술 끝의 소피스티케이션들에 지나지 않았다. 60년대와 70년대의 저 유신시대 그리고 80년대의 5공 시대를 거치면서 내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에 동참,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두 번의 유치장 신세를 지는 등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소년시절 북한에서 5년 동안 겪었던 그 경험은 원형 그대로의 마그마로 내 속에서 노상 꿈틀거리며 그 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²³⁾

1945년부터 50년까지 원산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보낸 5년이 흡사 '영혼 저 밑 바닥에 부은 마그마'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것은 이호철에게 "1950년 12월에 월남하고 오늘에까지 43년 동안 나름대로 일관하게 관통해왔던" 문제였고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체제로서의 공산주의와 이상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어떤 관계인가."²⁴⁾등을 내내 숙고하게 한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심부에서 터져 나올 기회만 엿보며 평생 들끓었던 이 마그마의 기억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세 원형의 소묘-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실천문학』 4호, 1983.12.)²⁵⁾에서 기척을 낸다.

22) 전소영, 『월남 작가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8면.

23) 이호철, 『머리말』, 『세기말의 사상 기행』, 민음사, 1993.

24) 이상 위의 글, 같은 번.

25) 이 소설은 민음사에서 2002년에 출간된 소설집 『남녘 사람 북녘 사람』에 다시 수록되었다. 자전적 단편소설인 『세 원형의 소묘』(1983), 『남에서 온 사람들』(1984), 『칠혹 어둠 속 질주』(1985), 『변혁 속 사람들』(1987), 『남녘사람 북녘사람』(1996) 이 연작 형태로 묶여있는 작품집

이 소설은 해방 이후부터 전쟁 이전까지의 북한 초기 사회주의 체제의 풍광을 다각적으로 담고 있다. 창작란에 실려 소설로 분류되었지만 수기(手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라는 부제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많이 담긴 작품인 까닭이다. 이호철의 언급에 따르면 “1955년 24세 때 단편 소설 『탈향』을 발표하면서 처음 썼던”²⁶⁾ 것으로 “저 북한 체제 속의 사람살이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드려”²⁷⁾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다.

박천옥(千玉)은 중 1때 공장 민청 면에서 특수 케이스로 전입해 들어 온 학생이었다. 국졸로 해방 전에 조선소(造船所) 선반공 견습으로 들어 갔다가, 해방 뒤 불과 1, 2년 동안에 그 공장의 열성 민청원으로 갑자기 부상(浮上), 배우고 싶다는 그의 뜨거운 바람을 받아들인 시(市) 작업 동맹의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 학급에 전입해 들어왔었다. 1947년 봄이었다. 처음 들어올 적부터 옷차림이며 생긴 것이며 매우 이색적이었다. 아래 위 검정색으로 염색한 삼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나마 부우연 먹물색 물감이 풀고루 물들여 있지 않아, 군데군데 얼룩이 저 있었고, 허연 실밥이 더덕더덕 드러나 있었다. 그날 아침에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누군가가 바리깡으로 대강 밀어 준 듯, 뽀뽀 깎은 민대가리에는 까만 때가 더뎠이져 있었으며, 게다가 그 머리꼭지 위로 삐죽 솟아 있어 첫인상부터 여간 고약스럽지가 않았다. 날씬하고 매끄러운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 보자 해도 찾아지지 않았다. (...)

“우리는 미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동무들! 계급 적(敵)을 미워하지 못하면(굵게는 인용자),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

이다.

26) 이호철은 『남녘사람 북녘사람』의 연작을 1955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원형의 소묘』는 그중 가장 첫머리에 놓이는 소설이다. 이호철, 『고등학교 시절의 활동, 그리고 『남녘사람 북녘사람』,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1, 앞의 책, 58면.

27) 이호철, 『선유리』, 미뉴엣, 2010, 301면.

하는 법을 배워야, 혁명사업에 첫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천하의 진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동무들과 상면하는 이 영광스러운 마당에, 저는 우선 이 한마디를 동무들에게 새삼 일깨우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²⁸⁾

‘인물연구’의 첫 대상으로 등장하는 박천옥에 관해 옮겼다. 공장 민청(북한 인민위원회 산하 청년 조직)에서 원산중학교로 특별히 전입해온²⁹⁾ 그는 ‘계급 적’을 ‘미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체제 강령을 교실에 전파하기 위해 양산된 “체제형(型)”³⁰⁾이었다. 박천옥은 노상 “계급 적(敵)에 대한 증오와 투지”를 지닌 채 “누가 반동인가, 누가 미온적인가, 누가 부르조아 행태에서 못 벗어나 있는가 하는 점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³¹⁾웠다.

중학교 교실에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한 이 박천옥은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수립 과정의 한 면모를 단적으로 가시화하는 인물이다. 당대 학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및 규율을 학생들에게 내면화하게 하는 일상의 주요한 장소였다. ‘계급 적’을 상정하여 타자화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동일성을 구축하는 것이 그 교실에서 행해진 ‘공공 교육의 첫 지표’이기도 했다.

보세요. “우리는 미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라는 말.

도대체 이 이상 당돌할 수가 없었지만, 실제로 그 무렵 북한에서는 그

28) 이호철, 『세 原型素描 - 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 『실천문학』, 1983.12., 403-404면.

29) 1983년 판본에는 박천옥이 ‘나가 중 1 때 같은 학급으로 전입해 들어왔고 그 시기가 1947년 봄이라고 쓰여있다. 작가의 이력과 비교했을 때 이는 오기이거나 윤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호철은 1945년 원산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47년 봄에는 중학교 3학년(혹은 원산고급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배경은 1946년~47년 정도가 맞을 듯 하다.

30) 이호철, 『세 原型素描 - 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 앞의 책, 412면.

31) 이상 위의 책, 405면-406면.

어떤 공적 모임에서건 공공 행사 자리에서건 이 소리는 북한 사회 구석 구석까지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선 적을 미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북한 체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 제가 그 나이 열 네 살 때의, 공공교육의 첫 지표가 바로 ‘사람을 미워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³²⁾

이호철이 직접 회고하기도 했듯, 당시 박천옥과 같은 자들의 말은 여하한 공적 자리에서 자주 회자가 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침투해들어갔다. 자기 외부의 적을 구분해내고 자기 내면의 적까지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혁명사업에 첫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다’는 것. 이는 즉 북한이 정권 수립 과정에서 당파적 성격의 이념을 중용하고³³⁾ 계급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거나 제거하면서 일상의 공동체를 이념 집단으로 재편해나갔음을 보여준다.

자기 집이 가까워져 오자 박천옥은 한교 안에서 설치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말이 없이 조용하였고 여느 때 없이 차악 가라앉아 들었다. 까만 색 책보로 쓴 책 더미를 한 손에 들고 조금 앞서서 걸어가는 그가, 나는 무언지 모르게 몽클하였다. (…)

박천옥은 거적대기 문을 부스스 밀고 부엌으로 들어가, 다 식은 삶은 감자 두 알이 놓인 흰 접시와 소금 한 움큼을 들고 나왔다. 그 모습은 학교에서 설치대던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그지없이 질박하고 선량한 모습이였다. 천진스럽게 웃으며,

“자, 하나씩 먹자, 식었지만 먹을 만하다.”

하고 그 중 하나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그로부터 근 사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나는 그때 그 감자 먹던 일과, 입 속에서 녹아들던 그 기묘한 감자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나는 뭘

32) 이호철, 『선유리』, 앞의 책, 302면.

33) 전소영, 앞의 논문, 64면.

지 모르게 눈물이 피잉 돌며 학교 안에서의 그의 모든 행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³⁴⁾

작중에서 ‘나’는 ‘계급 적’으로 분류될만한 가계의 내력을 지니기도 했거니와 인간적으로도 박천옥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하지만 우연히 그의 집을 들른 후 그 생각은 변한다. 학교 바깥에서 ‘나’가 목도한 박천옥은 체제의 괴물도 투사도 아니었다. 교실-이념의 주박에서 벗어난 그는 지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유일한 끼니를 나누어주는, 더없이 이타적이고 순정한 소년이었을 뿐이다. ‘나’와 박천옥이 이 맑고 순박한 교감 안에 놓이는 장면을 서술자는 공들여 길게 묘사해 낸다.

박천옥과 관련된 ‘나’의 이 감정적 전환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인다. 얼마든지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그와 자신을 갈라놓고 질서하게 한 것이, 바로 교실을 지배한 이데올로기적 규율임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진실을, 이념으로 동질화된 교실 집단과 타자에 대한 구별과 배제가 없는 교실 밖 공동체의 간극으로부터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설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반복, 변주된다. ‘나’는 별다른 논평 없이 분단 초기 사회주의 안에서 붕괴되고 재조립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주밀하게 비추지만 변질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당시의 문제를 충분히 헤아리게 한다.

거듭하자면 바로 이 기억이 작가의 ‘마그마’였던 것이다. “북한 체제 초기를 10대 후반에 5년 동안 겪었던 사실”은 이호철에게도 “영혼 저 밑 바닥에 부은 마그마, 암장마냥 깊숙이” 잠복해있었다. 그리고 월남 후에는 그가 “어떤 그럴싸한 이데올로기들도 나에게서 본원적으로 걸도는 것들이었고 입술 끝의 소피스티케이션”³⁵⁾이라고 판정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주었다.

34) 이호철, 『세 原型素描 - 장편소설을 위한 인물연구 노트』, 앞의 책, 16면.

35) 인용문은 이호철, 『머리말』, 『세기말의 사상 기행』, 민음사, 1993.

3. 소설 세계의 원형 : 환대의 공동체는 (불)가능한가

1950년대 소설들은 이 바로미터가 활용된 작품들이다. 분단 초기 북한의 체제 안에서 이념적 동일화와 타자화의 문제를 빠져리게 경험하고 월남한 이호철이었다. 하지만 남한 역시 방향은 다를 뿐 동질적 집단을 구축하려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여기에서도 그는 ‘이북내기’라는 또 다른 타자가 되고 만다. 월남 직후 그의 삶은 이러한 사실들, 즉 타자로서의 자신이 남쪽 사회에 소속되는 것도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착목하고 있는 초기 소설들이 그렇게 말해준다.³⁶⁾

이 글에서는 데리다에 기대어 우카이 사토시의 논의를 빌려 ‘환대’가 환대의 실천을 막는 주권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실 환대는 단순히 주인이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뜻을 지닌 단어가 아니라 주인 역시 손님이었음을 환기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개념이다. 국가의 주권은 본래 이 환대의 의미를 환기하면서 타자를 포용하기 위해 빚어진 권능이지만 그것이 타자를 배제하거나 추방하는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환대의 (불)가능성의 타진은 권력과 이념의 문제를 탐사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³⁷⁾

다시 『탈향』으로 돌아가보자. 비슷한 또래의 네 인물은 가족과 헤어져 월남한 후 서로에게 의지해 부산 생활을 견뎌 나간다. 그들의 유대는 피난 직후에만 해도 ‘넷이 헤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끈끈했다.

36) 가령 이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裸相』(『문학예술』, 1957.1.) 역시 곤궁한 월남 생활을 견디는 남성이 자기처럼 비루한 한 여성을 만나 가족을 이루지만 사회적 정황들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둘 다 남한 사회의 잉여적 인간이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37) 우카이 사토시, 『주권 너머에서』, 신지영 역, 그린비, 2010, 30-31면.

중공군이 밀려나온다는 바람에, 허턱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연한 관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땐, 사실 미칠것처럼 반가웠다. 야하 너무 땀구나, 너두, 너두...

뱃간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 이튿날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더럭 부리어졌다. 넷이 다 타향땅은 처음이라, 마주 건너다보며 그저 어리둥절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이십촌 안팎으로나마 서로 아접조카 집안끼리였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이다.

『야하 이제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이야』
삼손이는 몇번이고 되풀이 되풀이 지꺼리곤 했다.

……이럭저럭 한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달 사이에, 택진이는 택진이대로, 삼손이는 삼손이대로, 남 모르게 제가꿈의 배포가 서게 된 것은, (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타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돌아 갈바엔, 늘쌍 이러구만 있을 수는 없다. 다른 변통을 취해야겠다. 택진이와 삼손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꽤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사이는 솔직해지지 않고, 힐끔힐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³⁸⁾

그러나 피난지 생활이 길어지자 그들 사이의 구심력은 점점 약해진다. ‘남 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되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 이유가, 월남민을 온전히 포용하지 않았던 당대의 사회적 정황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나’ 등은 부산 피난민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었다. 토박이들은 “넷이 부두 앞에 나타났을 때 가지런히 훑어보며 지꺼”렸고 이후에도 “저이 들끼리 키드득거리며 (…) 북쪽 얘기를 하라고 자꾸 졸랐다.”³⁹⁾

기실 분단 체제 하 월남민은 정치적 국면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출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위

38) 이호철, 『脫鄉』, 앞의 책, 66-67면.

39) 위의 책, 73면.

치에 놓여있었다.⁴⁰⁾ 특히 전쟁 발발 이후 강력한 반공 사회를 구축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던 당대 정권하에서 반공주의에 적응하도록 종용당하거나 감시와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분단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전시기, 월남민들은 이처럼 남한에서 원하는 원치 않든 이북 정체성을 발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진실과 상관없이 소문에 의해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했다.⁴¹⁾ 남한 사회에서 그들은 환대받을 수 없는, 철저한 타자였던 것이다.

그 존재 방식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설정이 바로 ‘화차 살이’이다. 넷은 “하루저녁에도 몇 번씩 이 화차 저 화차 자리를 옮겨잡아야”⁴²⁾하는 괴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는 물론 전시기의 피난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월남민에게 있어 이 ‘정주할 곳 없음’의 문제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충분히 가늠하게 한다.

이를테면 『餘分の 人間들』(『사상계』 6권 1호, 1958.1.)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자. 이 소설에는 『탈향』처럼 갈 곳 없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이 동거하는 집은 그중 한 명이 어디선가 구해온 천막으로 겨우 만든 것이었다. 소설은 이 보잘것없는 천막집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고아 완태, 형우, 월남민 고가, 숙희의 서사로 꾸려져 있다. 다만 “이 집은 대한민국 국적에 정식등록이”⁴³⁾ 된 것도, 번지가 있는 것도, 기류계를 한 것도 아니다. 남한 땅에 발붙일 곳이라고는 이 유령 같은 가짜집 밖에 없는 ‘여분의 인간들’을 소설은 이렇게 그려낸다. 처음에 서로에게 정을 붙이며 모종의 유대를 형성했던 넷은 결말에 이르러 뿔뿔히 흩어지고 만다.

이 같은 양상은 『탈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다. 부산에서 소외

40) 한성훈, 『월남민의 서사 - 출신지와 이산가족, 전쟁 체험을 중심으로』,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정착, 자원, 사회의식』, 혜안, 302면.

41) 김귀옥, 『냉전 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 - 월남자, 월북자, 납북자』, 『황해문화』, 2010.6, 46-47면.

42) 이호철, 『脫郷』, 앞의 책, 64면.

43) 이호철, 『餘分の 人間들』, 『사상계』 6권 1호, 1958.1, 342면.

를 겪으며 넷은 종내 각자 도생의 방안을 궁리한다. 남한 사회에 동화되려는 욕망을 지닌 삼손은 토박이들이 ‘원하는’ 북쪽 이야기를 들려주고 적극적으로 부산의 문화를 체득한다. 반대로 택진은 고향에 돌아갈 궁리만을 하면서 ‘부산 내기’들을 거꾸로 얽잡아 보고 적대시한다. 비교적 어리고 약한 하원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픔과 눈물 속으로 침잠해간다. 실제로 당시 월남한 이들 앞에 놓였던 삶의 선택지가 이와 같았으리라.

그런데 네 인물 중 이호철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자 ‘나는 나머지 셋과 모두 거리를 둔다. 남한에 적극적으로 스며드는 것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양쪽 모두 체념하고 감상에 빠져드는 것도 ‘나에게는 여의치 않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이호철의 원형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거듭하건대 이호철은 분단 초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행사한 동일성의 폭력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남하 후에도 반공주의로 인해 타자화되며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다.⁴⁴⁾ 소설 속에서 부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불의의 사고로 끔찍하게 죽는 삼손의 이야기에는 작가 자신이 절실히 체감한 분단 체제의 공포가 각인되어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파훼되는 과정을 지켜본 ‘나는 결국 북한에도 남한에도 그들이 머무를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하원마저 버린 채 무궤도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그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지꺼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꼬치여, 아, 눈꼬치여> 뭔가 못건디게 그리운것처럼 애탤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44) 예를 들어 이호철은 월남 이후 병역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술회하였는데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이호철의 문단일기』, 프리미엄북스, 1997, 226-227면.) 실제로 월남자 중 20-30대 남성들은 제2국민병이나 군노무자KSC, 즉 전쟁의 총알받이로 징집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김귀옥, 앞의 글, 52면.)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 밑속에선,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주룩 흘
렀다.⁴⁵⁾

단, 소설은 ‘나와 하원의 결별 장면 대신, ‘나’가 순간 “입술을 악물”며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이 결말은 소설의 제목
인 ‘탈향’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타의에 의해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
는 상황’을 실향이라고 부른다면, ‘탈향’은 그보다 능동적인 떠남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가. 분단의 이념에 남북이 속박되어 있
는 한, 남면의 적법한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도 북면의 고향 원산으로 돌
아가는 것도 ‘나’에게는 온당한 정주가 될 수 없다. 이념의 주박에서 벗어
나 타자를 환대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고향, 그리고 정착의 장소가 아니겠는가. 이제 ‘나’는 고향
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고향이 될 수 있을지 타진하는
자, 인간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공감과 연대의 공간을 찾는 자가 된 것
이다.

거추장스럽다고 하원마저 버린 ‘나’가 속편인⁴⁶⁾ 『無軌道 第二章』(『文學
藝術』 3권 9호, 1956. 9.)에서 다시 간절하게 누군가와와의 유대를 바라는
아이러니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궤도 제2장』 역시 『탈향

45) 이호철, 『脫鄉』, 앞의 책, 75-76면.

46) “북에서 피난을 나와 고향 친지들과 화차살이를 하다가, 한 녀석은 화차에 깔려 팔 하나가
송두리째 끊어져 죽고, 한 녀석은 아예 행적을 감추고 나머지 둘만 달랑 남았었는데, 청년도
끝내는 그 남은 한 녀석마저 버리고, 터무니없이도 안겨 오는 자유감과 가냘픈 양심의 가책
을 부여안은 채, 이 부산 거리 흙탕물 세간 속으로 휩쓸려 들기 직전의 전을 섞인 두려움과
긴장과 착잡한 심정을 부여안고, 어느 캄캄한 밤에 혼자서만 그 화차 칸을 뛰쳐나오고 말았
던 것이다. 이 거리에서 새롭게 살아 보리라는 패기만만한 포부와 함께.” 이와 같은 언급이
두 소설 사이의 연관성을 방증해준다. 이호철, 『無軌道 第二章』, 『文學藝術』 3권 9호, 1956.
9, 46면.

』처럼 남한에 와서 부유하는 월남민들을 중심에 내세운 소설이다. 중심인물 중 한 명인 청년은 부산을 떠돌다 우연히 알게 된 연상의 여성과 자유로운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 월남민 출신인 양쪽 모두 처음에는 세속적인 계약관계에 전혀 얽매이지 않은 자신들의 피상적 유대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두 사이엔 어떤 양해가 이루어져 있었다. 온갖 속 기대(期待)를 포기한 연후의 엄청스럽게도 글안겨 오는 자유감이랄까 하여튼 지나가던 길에 잠깐 마주쳤을 뿐이라는 식의 수월스런 아주머니 생활태도가 기초(基調)로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피차 아무런 자국도 부담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청년은 그저 이것이 좋았다.

실로 무쾌도다, 무쾌도다, 이 혼탁(混濁)한 거리에서 스스로를 끌고 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청년은 제법 몸심을 부리며 이렇듯 자신에게 타이르곤 했다. 그러나 원지 석연찮이 섭섭했고 스스로의 텅 빈 몸짓같은것만 쑥스러히 의식되는 것이었다.

차츰 청년은 아주머니와의 관계의 형식에 있어 어떤 궁극적인 틀이 바라는 것이었고, 엉뚱한 것이 무겁고 초조스러워 못견디겠다는 것이었다.⁴⁷⁾

이들이 관계에 대해 이같이 무심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온갖 기대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월남 살이 안에서 불가피하게 ‘무쾌도’의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 이들은, 덜 상처받기 위해 짐짓 어떤 소속감도 원치 않는다고 자기 위안을 해왔던 것이다. 피차 아무 상처도 부담도 주지 않는 만남과 헤어짐, 그들은 “그것이 좋았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떤 포즈였을 뿐 그들은 점점 “석연찮이 섭섭했고 스스로의 텅 빈 몸짓같은것만 쑥스러히 의식되는 것이었다.” ‘어떤 궁극적인

47) 위의 책, 48면.

〈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반공 이념으로 동일화되고 있는 남한의 집단이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며 타자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환대의 공동체일 것이다. 그곳에만 그들이 소속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 ‘틀’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 월남민이라는 입장이 경계선이 되어, 이 둘은 마지막까지도 유대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서로에게 내비치지 못한다.

1950년대 이호철에게 있어 한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는 바로 이 타자와 환대의 문제였다. 분단을 초래한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안에는 타자화의 폭력이 매복해있었고 그것이 ‘마음의 분단’을 촉발함으로써 북쪽에도 남쪽에도 환대하는 공동체의 형상은 소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호철은 맨 처음부터 “실신한 시간 속에 남겨져”⁴⁸⁾ “막연하고 뿌옇게 느껴지”⁴⁹⁾는 유대감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에 담으려 애썼던 것이다.

4. 그 ‘산’ 찾기의 여정

이호철이 부산에서 『탈향』보다 먼저 썼다는⁵⁰⁾ 『素描』⁵¹⁾를 보기로 하

48) 미군 부대 안 클럽의 웨이트리스 두 명을 주인공 삼은 『倦怠』(원제 『細實果』, 『새벽』, 1960년 2월.)에서 옮긴 구절들이다. 이호철의 나이를 상기시키는 스물한 살의 친애 고아 희연이 마 찬가지의 처지에 놓여있는 동료 인숙과 자신의 ‘친밀도’를 탐구하는 내용을 세필로 묘사한 소설이다. 이호철, 『권태』, 『무례도 2장』, 북치는 마을, 2013, 44면.

49) 위의 책, 30면.

50) 이호철, 『素描』와 『倦怠』, 앞의 글, 83면.

51) 1950년대 초반에 염상섭과 황순원에게 보였던 소설이다.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이호철의 문단일기』, 프리미엄북스, 1997, 102-10면 참고.) 1957년 10월 『문학예술』지에 『핏자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나 1961년 사상계사에서 발간된 작품집 『나상』에 수록되면서 제목이 『소묘』로 바뀌었다. 이때 어구와 문장 일부가 첨삭되었고 1998년 청계에서 출간된 『빈골짜기-이호철 전집2』에 『오돌 할멈』으로 개제, 문장 수정이 이루어졌다. (황태목,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면.)

자. 서사는 비교적 단순하다. 중심인물인 오돌 할멈은 강원도 정선의 두메 산골에서 살아가는 노파이다. 홀로 키운 오돌이를 전장에 내보낸 후론 날마다 산제터의 산신에게 그의 무사를 기원한다. 하지만 끝내 노파는 손자와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그 직후 마을에서는 산제터의 소나무도 베어지고 오돌의 집마저 전소된다.

서향한 원편 양지터에는 조그만 무덤이 하나 더 불고 돼지우리에는 조의 짚 무더기만 가득할 뿐 돼지는 간 곳이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산제터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밑을 향해 넘어져 있고 그곳이 황하게 비어 있어서 마을이(마을이랄 것도 없지만) 조금 균형을 잃은 것 같기는 했으나, 뭐 그다지 별로 크게 표는 나지 않았다. (...) 며칠이 지닌 어느날 오돌네 집에는 불이 일어났다. 뒤란 오동나무가 후들후들 떨 듯 빠지직빠지직 소리를 내며 타고, 장독 튀는 소리가 팡팡 울렸다.

몇 안 되는 동네 사람들은 삼발 건너 군밭이네 집에 우줄우줄 모여 퇴창문 틈으로 머리들만 내밀고 이 불붙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모두들 괴괴하게 말이라고는 없었다.⁵²⁾

이 작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결말 부분이다. 내내 오돌 할멈의 미시적인 일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소설은, 결미에 이르러 마을의 전경과 주민 공동체의 모습을 거시적으로 비교적 길게 담아낸다.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은,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포착하는 방식에 따라 다채롭게 그려질 수 있다. 그것이 이호철에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즉 한때는 산제터에서 마을의 안녕을 함께 기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웃의 집에 불이 붙어도 ‘괴괴하게 말이라고는 없’는 채로 그것을 구경하게 된 모습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소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산의 형상은 추후 『큰 산』⁵³⁾에서 거의 유사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52) 이호철, 『뫼자국』, 『문학예술』, 1957.10, 73면.

진다.

『큰 산』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나와 아내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룬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⁵⁴⁾ 어느 날 이들 집의 담 위에 흰 고무신 한 짝이 놓여있었는데 부부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며 그것을 길가의 아무 집 담장에나 던져 버린다. 하지만 열흘 뒤 고무신은 다시 그들의 담 밑으로 돌아온다. 주민들 모두가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는 일을 거듭해 고무신이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또 ‘나의 집으로 옮겨진 것이다.⁵⁵⁾

이 소설이 쓰인 당시의 남한 사회에서는 반공주의를 국시 삼은 독재 체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강제로 저당 잡힌 채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일상을 이어가야 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밤마다 어딘가로부터 들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굿판의 뿡과 리 소리는 이 불안한 삶의 상징이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큰 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에둘러 말한다.

우리 마을 서면 멀리 청빛의 마식령 줄기가 가로 뻗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큰 산’이라고 불렀다. 내 경우 이 ‘큰 산’은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나의 존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균형의 어떤 근원을 떠받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⁵⁶⁾

53) 1970년 『월간문학』 7월호에 처음 발표된 소설이다.

54) ‘마식령 줄기’에 대한 ‘나’의 언급은 소설 속 ‘큰 산’이 작가가 유년기 고향 원산에서 바라보았던 산맥을 모델 삼은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작중 나는 태평양 전쟁기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언급하는데 이호철이 갈마국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가 한창 태평양 전쟁기 진행 중이었던 1942년이었던. 여러모로 자전성을 지닌 소설이라 할 수 있다.

55) 이호철, 『큰 산』, 『이호철 문학전집 1 판문점』, 청계, 1988, 215면.

56) 위의 책, 211면.

이호철이 이 산의 형상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두고 온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아니다. 작중에서 ‘나’는 담장에 버려진 흰 고무신에, 태평양 전쟁기 고향에서 목도했던 지까다비 한 짝을 오버랩시킨다. 지까다비는 일제 말기 강제 징용된 노동자의 삶을 환유하는 것인데 비 오는 날 흙 속에 파묻힌 그것의 외양은 억압당하는 식민지민의 고통을 직감하게 한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이 지까다비를 발견했고 그 순간, 영구히 청빛일 것만 같던 ‘큰 산’이 구름에 가려져 그로테스크한 외양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며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런데 그 느낌을 현재의 버려진 흰 고무신으로부터 똑같이 받고 있다. 태평양 전쟁기에, 1960년대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⁵⁷⁾던 ‘큰 산’이 가려졌다는 것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잠식한 폭력적인 이념들이 환대와 화해가 가능한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이호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기억은 이처럼 오랫동안 마음 안쪽에서 들끓으며 그가 현실을 향해 날 선 시선을 던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던 것이다.

2016년에 타계한 이호철은 분단과 전쟁 ‘이후’의 긴 시기를 가로지르며 성실하게 소설을 써냈던 작가였다. 특히 1950년대의 작품들에는, 그를 문학으로 이끈 동인들이 단단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호철이 여러 산문을 통해 그의 습작기와 등단 초기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발화한 이유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향간에서 규정한 그의 출세작이 무엇이든, 이호철에게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인생에서 다시 없을 선명한 ‘핏자국의 임리’였던 것이다.

이호철은 다작의 작가였고 소설만큼이나 많은 산문을 남겼으나 서지조차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그런 작가의 문학 세계를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쓰였다. 이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이

57) 위의 책, 216면.

야기를 드러내고 거기 의지해 연보 상에 기록된 초기작의 범주를 넓혀보고자 하였다. 이호철이 초기 단편들에서 명시적, 암시적으로 드러낸 타자와 환대의 문제는 분단국가의 진영 논리가 지닌 폭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가 주권 너머의 환대를 꿈꾸었던 그 평생의 꿈은 지금까지도 흠어지지 않은 채 수다한 작품 속에서 명멸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이호철, 『이호철 전집 1 - 판문점』, 청계, 1988.
_____, 『이호철 전집 2 - 빈 골짜기』, 청계, 1988.
_____, 『세기말의 사상 기행』, 민음사, 1993.
_____, 『선유리』, 미뉴엣, 2010.
_____, 『문단골 사람들—이호철의 문단 일기』, 프리미엄박스, 1997.
_____, 『무케도 2장』, 복치는 마을, 2013.
_____, 『우리네 문단골 이야기』 1,2, 자유문고, 2018.

2. 단행본 및 논문

- 강진호 편, 『이호철 원용의 삶과 끈은 지향의 문학』, 글누림, 2010.
구재진, 「1950년대 이호철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 2017.
김귀옥, 「냉전 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 - 월남자, 월북자, 납북자」, 『황해문화』, 2010.6, 46-68면.
김춘식, 「소시민적 체험과 분단인식의 문학」, 『한국문학연구』 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6, 12, 169-183면.
박은태, 「이호철의 1950년대 소설 연구」, 『수련어문학회』 28, 2003, 55-81면.
서세림, 「1960년대 이후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월남민 형상화 연구」, 『한어문교육』 32 권, 2015, 159-180면.
음영철, 「이호철 소설의 분단서사 양상 연구」, 『통일인문학』 54,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11, 171-197면.
전소영, 「월남 작가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정호웅 외,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정호웅 외, 『이호철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조현일, 「이호철의 1950년대 소설 연구 : 감정과 눈물의 윤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7, 2008, 349-382면.
한성훈 외,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정착, 자원, 사회의식』, 해안.
황태묵,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The study for the 1950s fictions written by
Lee Hochul
—the literary methods that triggered the contradiction of
separation system and ideology by community problems

Jeon, So-Young

Lee Hochul confessed that the works at the early stage after his debut seemed like coughed bloodstains. His 1950s fictions contained the signs of painful life that he experienced since he had moved to the south boarding the boat for refugees. He, who had to continue the lonely life in the south after leaving his family in the north, writes the processes of meeting and parting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the individuals in his early novels, repeatedly. Of course, they have the writer's original memory or self-consciousness.

Lee Hochul studied at Wonsan middle and high schools when socialist's regime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right after liberation. At that time, he faced the fighter characters of ideology at the classroom where was the place for propagation of strong ideology. He felt the violence of the system that broke up the existing community or made the individual members as a homogenous group in terms of ideology by the process to make or eliminate enemies. Experiences at that time remained as the original problems of the writer and became media to capture the social problems in the south where separation ideology was prevailed. Hence, Lee Hochul prepared the literary methods that triggered the contradiction of separation system and ideology by community problems

in his novels in 1950s.

Key words: Lee Hochul, 1950's fictions, refugees, community, Wonsan

투 고 일 : 2020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9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